

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44호 [루게 제2722호]

주체 111
(2022)년 10월
29일
토요일
음력 10월 5일

절세위인의 향도 따라 삼천리

강도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10월이 전하는 절세위인의 불멸의 헌신



격정으로 가슴높뛰고 사랑으로 눈곱젖어들던 10월이 저물어가고있다. 이 땅에 래를 묻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머니라 부르며 따르고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는 조선로동당, 이 세상 그 어떤 천지풍파가 밀려온대도 언제나 백승의력 사만을 아로새겨온 위대한 어머니당의 생일이 아로새겨진 10월이다.

그래서 조선로동당이란 그 부름 조용히 외워만 보아도 그지없는 행복으로 가슴 부풀어오르고 끝없는 긍지로 심장을 끓이는 이 나라 인민들이 아니던가. 온 나라 인민들은 끓어오르는 감격속에 다시금 되새겨보고있다. 어머니당의 창건 77돐을 맞는 뜻깊은 이 10월에 새겨진 잊지 못할 불멸의 화폭들을.

존엄높은 조선로동당을 전도양양할 당으로

10월 17일. 이날은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역사적뿌리가 내린 뜻깊은 날이다. 지금으로부터 90여년전인 주체15(1926)년 10월 17일,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라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시였다. 이로써 조선인민의 혁명투쟁은 자기 발전의 새로운 길에 들어서게 되였으며 조선로동당의 영광스러운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이렇듯 뜻깊은 날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를 찾으시였다. 못잊을 그날 교내에 모셔진 위대한 수령님의 친필비와 혁명사적교양실을 비롯한 학교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귀중한 가르치심도 주시고 교

육실태도 료해하신 그이께서는 교직원, 학생들앞에서 《새시대 우리 당건설방향과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의 임무에 대하여》라는 역사적인 기념강의를 하시였다. 기념강의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혁명앞에 나선 무겁고도 방대한 과업뿐 아니라 사회주의건설의 합법칙적으로 맞는 새시대 조선로동당의 5대건설방향을 새롭게 제시하시였다. 정치건설, 조직건설, 사상건설, 규율건설, 작풍건설을 내용으로 하는 5대건설방향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당건설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독창적으로 발전풍부화시킨 새시대 전당강화발전의 휘황한 진로이며 이 세상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전무후무한 당건설 대강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시대 조선로동당의 5대건설방향을 제시해주시심으로 최강의 당건설사상을 기록하는 조선로동당의 강화발전을 더욱 실속있게 추진하고 당의 면모와 기풍을 확립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업무를 확신있게 수행해나갈수 있는 백년, 천년의 담보가 마련되였다. 중첩되는 도전과 장애를 과감히 깃부시며 국가부흥의 새로운 국면을 열기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시기에 주체의 혁명적당건설사에 특기할 불멸의 대강을 받아안은 온 나라 인민의 가슴가슴은 지금 끝없는 격

정과 무한한 환희에 넘쳐있다. 왜 그렇지 않겠는가. 지난 10년간 비범한 예지와 불면불휴의 사상리론활동으로 당의 강화발전을 위한 백과사전적인 지침들을 마련해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첫 진군길에서 조선로동당의 혁명사상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정식화하시고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시였으며 역사적인 당 제8차대회 이후에만도 지도계선별, 공작 부문별대회와 강습들을 순차적으로, 집중적으로 진행하여 당사업을 혁신해나가기 위한 활동방향과 과업들을 뚜렷이 명시해주시신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이번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주체혁명의 새시대 당건설리론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으로써 《E.C》가 결성된 역사적인 날을 새로운 출발선으로 하여 존엄높은 조선로동당을 전도양양한 당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나갈수 있는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가 마련되게 되였다. 존엄높은 조선로동당을 전도양양한 당으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에 새기신 거룩한 령도의 자욱은 조선로동당을 사회주의건설의 강위력한 정치적잠모부, 정예화된 강철의 전위대로, 진정한 어머니당으로 더욱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추동한 역사적행보로 조선로동당의 력사에 길이 빛날것이다.

나라의 핵심공간들을 육성하는 원종장으로

최근 공화국의 신문, 통신, 방송들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두차례에 걸쳐 만경대혁명학원을 찾으시고 원아들을 태양의 열과 정으로 따듯이 보살피시며 주체혁명의 혈맥을 굳건히 이어 나가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신 혁명활동소식을 보도하였다. 나라의 모든 사업을 돌보시는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만경대혁명학원과 강반석혁명학원창립 75돐 기념행사에 참석하시며 뜻깊은 기념연설을 하시신 경애하는 원수님, 주말에 꼭 다시 오겠다고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또다시 친금같은 시간을 내시며 만경대혁명학원을 찾으시고 원아들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보내시는 자애로운 아버지의 인자하신

영상을 우리르며 온 나라 인민들은 뜨거운 격정으로 두 볼을 적시였다. 만경대혁명학원과 강반석혁명학원은 장장 75년의 연혁사를 자랑하는 주체혁명의 원기둥이며 조선로동당의 성스러운 위업을 떠메고 나가는 핵심공간들을 육성하는 원종장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뜻깊은 기념연설에서 말씀하신것처럼 만경대혁명학원 졸업생들 가운데서 공화국정부의 수반이 3명, 조선인민군 원수가 3명 나오고 3중영웅, 2중영웅들을 포함하여 수십명의 영웅이 배출되었다는 사실은 혁명가유자녀들에 대한 당과 수령의 신임이 얼마나 크고 그들을 국가의 대들보로 키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품을

들여왔는가를 웅변으로 보여주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깊은 기념연설을 들으며 사람들은 혁명의 원기둥, 원피줄기인 혁명학원의 학생들을 문 무를 견뎌낸 견결한 혁명가, 당의 교내자, 후비대로 튼튼히 키우기 위해 기술이시는 그이의 크나큰 심혈과 로고에 대해 다시금 뜨겁게 새겨안았다. 경애하는 그이께서 혁명학원 원아들을 얼마나 중시하시는가 하는것은 주말에 꼭 다시 오겠다고 하신 약속을 지키시며 또다시 만경대혁명학원을 찾으신 그날에 새겨진 사랑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못잊을 그날 만경대혁명학원에 또다시 찾아오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원아들을 나라의 훌륭한 역군으로 키우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학생들의 격률 및 수영훈련도 보여주셨다. 또한 졸업반 학생들의 권총실탄사격도 보여주시면서 학생들이 명중사적으로 편이러 만점을 쏠 때만 마다 못내 대견해하시며 환한 미소속에 인참으로 박수도 쳐주시고 그들과 사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였다. 그토록 오랜 시간을 혁명가유자녀들을 위해 바치기도 못다 주신 사랑이 있는 신듯 식당에 들리시며 원아들의 식생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며 몸소 밥맛과 죽맛도 보여주시고 원아들에게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가, 음식을 어떻

게 가공했을 때가 제일 맛이 있는가고 다정히 물어주시며 원아들의 식생활을 그들의 구미와 영양학적요구에 맞게 향상시키기 위하여 고기와 알, 물고기와 낚새, 다시마와 젓갈, 기초식품 등을 정상적으로 충분히 보충해줄도록 은정 어린 조치를 취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다심하신 그이의 사랑을 받아안은 원아들도, TV 화면으로 감격의 화폭들을 바라보는 온 나라 인민들도 위대한 어머니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으로 가슴을 들먹이였다. 뜻깊은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만경대혁명학원을 교수교양에서 전국의 본보기학교, 모든 교육단위가 아득히 올려다보는 학교의 학교! 진정한 만경대혁명학원을 찾아주시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교로 만드는것이 우리 당의 혁명학원강화의 원칙적요구이라고 하시였다. 모든 교육단위가 아득히 올려다보는 학교의 학교! 진정한 만경대혁명학원을 찾아주시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의 자욱은 혁명가유자녀들을 조선혁명의 참다운 계승자들로 길들이 내세워주시며 성장의 걸음걸음을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자애로운 아버지의 후대사랑의 위대한 령정이다.



《위대한 어머니당의 뜻깊은 생일을 맞으며 이처럼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크나큰 사랑의 선물인 우리 인민에게 또다시 안겨졌으니 세상에 우리 당의 품보다 더

따사롭고 자애로운 품은 없습시다.》 《가정주부로서 남새격정이 컸는데 우리 녀인들의 속마음까지 그토록 속속들이 헤아려주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 삼가 큰절을 올리고싶습니다.》 《인민과 한 약속,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은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어갈 결심을 보아야 한다는것

을 확고부동한 의지로 내우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의 하늘같은 인민사랑을 떠나 동해기슭에 펼쳐진 거대한 온실바다는 생각할수 없습시다.》

인민이 받아안은 사랑의 선물, 번영의 재부



... 끝간데 없이 펼쳐진 동해의 남해바다 편포온실농장. 이를 바라보며 터치는 인민들의 격정의 목소리이다. 바라볼수록, 안아볼수록 밀물처럼 안겨드는 어머니사랑 일진대 어찌 인민들 눈곱적이지 않음의 고마움의 목소리 터치지 않겠는가. 언제나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며 인민을 위해 밀사복무하는 조선로동당이 자기의 생일날에 인민들에게 안겨주는 사랑의 선물인 여서 준공식장에 홀려넘친 감격의 파도 그렇듯 세차게 일렁인것이다. 사람들 누구나 지나온 230여 일을 격정속에 떠올린다. 나라의 중요한 공업도시, 과학도시인 함흥시와 함경남도인민들의 남새보장문제를 언제나 증대사항으로 판

심하시며 부지확장과 령향편성, 설계와 시공, 자체보장 문제에 이르기까지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주시고 몸소 시공주, 건설주가 되시어 건설 전 과정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인민사랑으로 홀려온 230여일. 그리고 당중앙의 특별명령을 받아안은 군인건설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확공의 첫삽을 뜨셨던 장소의 흙을 담은 붉은 주머니와 피끓는 심장으로 쓴 맹세문을 가슴에 품고 낮에 밤을 이어 백열전을 벌리던 잊지 못할 날들. 그 230여일동안에 280정보의 드넓은 부지에 현대화, 집약화, 공업화된 850여동의 수경 및 토양온실들과 지방의 특색을 살린 1000여대의 살림집, 학교, 문화회관, 종합봉사시설 등이 구획별로 이채롭게 조화되어 새시대의 문명을 과시하는 웅근 하나의 대농장지구, 사람들이 리

상으로만 그려보던 거대한 온실농장이 세상에 보란듯이 일떠섰다. 하기에 진정한 인민의 당, 어머니당을 우리르며 인민들이 터치는 만세소리 하늘땅을 진감하며 끝없이 메아리 친것 아니겠는가. 대규모남새생산기지인 편포 온실농장 준공식날 가없이 펼쳐진 온실바다를 오래도록 부강하시며 대규모의 현대적 온실농장이 일떠섬으로써 나라의 경제와 과학기술발전에서 큰 몫을 맡아 수고 많은 함흥시의 로동계급과 과학자들, 함경남도인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남새를 정상적으로 공급할수 있게 되었다고 기쁨을 금치 못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태양의 미소를 인민들은 영원히 잊지 못할것이다. 정녕 동해에 펼쳐진 온실바다는 위대한 어머니당, 조선로동당이 인민들에게 안겨준 또 하나의 사랑의 선물이며 번영의 재부이다.

* 잊지 못할 10월에 새겨진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민헌신의 자욱자욱을 되새겨볼수록은 나라 인민들은 위대한 어머니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에 눈곱적진다. 이 한밤도 먼길 가실 원수님 생각하며 우리 마음 자욱자욱 간절히 따라섭니다. 우리 운명 우리 행복 원수님께 달려있기에 아찔처럼 소원은 하나 원수님의 안녕입니다. ... 사랑하는 인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어제도 오늘도 위민헌신의 길을 취임없이 걸고걸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정녕 공화국의 10월이 전하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행보는 이 땅에 무수히 새겨지는 인민사랑의 전설들과 더불어 후세에 길이 길이 전해질것이다. 본사기자 유금주

절승경개 모란봉을 시에 남아

천하에 그 자태 빛나는 너
민족의 자량으로
수수천년 평양의 전상으로
유명한 청류벽을 만들고
대동강을 넘껏 겨안아
아, 모란봉



예로부터 평양의 절승으로 이름높은 모란봉!
봄이면 온갖 꽃이 봉우리마다 만발하고 여름이면 록음이 우거지는 모란봉에 단풍계절이 왔다.
얼마전 모란봉의 단풍경치에 끌리어 이곳에 오른 우리의 눈앞에 이채로운 경관이 펼쳐졌다.
가없이 넓은 하늘은 푸르르네 높고낮은 산봉우리마다 붉은빛, 황금빛으로 곱게 곱게 단장한 황룡경을 이루는 모란봉.
모란봉이라면 꽃계절, 록을계절에 찾은 것이 제일이라 하지만 단풍으로 물든 가을 풍경도 볼수록 장관이었다.
울긋불긋 아름다운 일색들로 단장한 단풍나무, 은행나무, 수삼나무 등 수십종의 나무들이 어서 오라 부르며 자기들의 자태를 한껏 자랑하고 그 사이사이에 있는 푸르른 소나무들로 모란봉은 더한층 화려하게 채색된 듯싶었다.
불개 라는 단풍잎을 만져 보고싶어 키돋움하는 어린 학생들이며 가을날의 모란봉을 화폭에 담으며 붓을 놀리는 미술가들의 모습도 여기저기에서 보인다.
모란봉수록 마음을 흥그리게 해주는 모란봉의 경치에 흠뻑 취해 대동강물이 감돌아흐르는 청류벽의 청류정으로 향하던 우리의 귀전에 누군가 시를 읊는 소리가 들려왔다.
얼마나 아름다우면 그 이름 모란꽃에 비겼으랴

천하제일강산 평양이 안아올린 우리의 모란봉아
대동강 저 물결도 서해 갈길 잊었는가 서서히 물간개로 피어올라 모란봉초목을 적시더니 어느새 천만미술로 맺혀 무수히 반짝이여라 ...
계절은 계절마다 최절경이니 사람들은 춘추추동 너를 찾아라
찾아서는 경치만을 즐기다가 이 산정 끝없이 아끼고픈 고향 마음도 새까마랑 새록새록 절로 울러라
나는 몰라라 너의 눈부신 자태를 닮아 우리 마음 이리도 아름다운 것인지 우리 인민의 정갈한 마음산정에 비껴 내 그리도 아름다웠는지 ...
저 멀리 아득한 태고적에 수려하게 솟아올라 그 자태를 빛내이는 모란봉의 절승경개를 노래하는 시의 세계에 심취되어 가까이 가보니 온 나라에 널리 알려진 특류영예군인 조광원시인이었다.
비록 두다리와 오른팔이 없는 몸이지만 꿈과 희망을 활짝 꽃피워주는 고마운 사회주의조국의 품속에서 시인으로 어엿하게 성장한 그였다.
지난 시기 시조 《나의 자

리를 내어달라》, 시조 《신천의 결산은 끝나지 않았다》, 시조 《백두여 그대가 나를 세웠다》를 비롯한 수많은 시작품들을 훌륭히 창작하여 조선문학축전상과 6월 4일문학상을 수여받은 그의 시들은 착상이 새롭고 시어가 독특하며 감정이 절절하면서도 섬세한 것이 특징이다.
최근에는 《나의 사랑 모란봉아》와 같은 시조들을 창작하여 《모란봉시인》으로 문단에 널리 알려졌고 《정말이지 눈길이 가닿는 곳마다 시어들이 절로 묻어 나오는 모란봉입니다. 모란봉에 대한 시를 많이 써왔다고는 하지만 그 눈부신 자태와 수려한 절경을 다 노래하기에는 아직 멀었습니다. 저길 보십시오. 한성토록 그림을 그려왔다는 저 미술가도 모란봉의 절경앞에서 학생마냥 맘을 빼고있습다.》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이어 그에게서 이런 시가 흘러나왔다.
보아라 수려한 산천을 담으려니 뿌리깊은 력사는 어디에 담으려니 수천년 역사를 담으려니 크고작은 전설들은 어디에 담으려니 모란봉에 울리는 행복의 찬가 이것은 또 어디에 담으려니 그가 읊는 시를 들으며 발밑으로 유유히 흐르는 대동강과 나날이 몰라보게 변모

되는 평양을 바라보는 우리의 가슴은 한없이 부풀어올랐다. 동해의 총석정마냥 우뚝우뚝 솟은 장전거리와 송화거리, 회열에 넘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는듯싶은 문수물놀이장이며 풍라인 민유원지 그리고 옥류관의 유아한 활각지붕...
황홀한 눈앞의 정경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느라니 문득 고려시기의 유명한 시인 김황원이 부루루에 올라 지었다는 시구절이 떠올랐다.
긴 성벽 한쪽면에는 늘실 늘실 강물이요 큰 들만 동쪽머리에 떠여 떠여 산들일세
여기까지 짓고 자기의 시적 재능으로는 평양과 모란봉의 절경을 다 담을 수가 없어 그만 붓대를 꺾어던지고 통곡하였다는 김황원... 하긴 말과 글, 그림으로써야 어찌 천하 절승 모란봉의 수려함을 다 노래할 수 있으랴.
《월마라 갖가지 꽃들이 만발하고 수련이 울창한 모란봉은 력사유적 또한 많아 평양의 절승으로, 이름난 명승지로 일러왔습니다. 이끼 푸른 성벽과 성문, 무정들이 모란봉의 풍치와 하나로 어울려 그 유구함과 수려함을 더해주고있습다.》
모란봉을 남달리 사랑하는 조광원시인은 모란봉의 력사 유적들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있었다.
모란봉의 력사유적들이 6세기중엽에 고구려가 평양성을 수도성으로 정하고 쌓은 지휘

처와 성문들로 이루어져있다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가정의 행복보다 나라를 지켜싸우는 것을 더 귀중히 여긴 애국적인민들의 전설이 깃들어있는 절승문이며 그곳에서 바라보는 경치가 제일 아름답다고 하여 《최승대》라고 부르는 무정, 고구려인민들의 발전된 성문건축술을 보여주는 현문문 등을 지나 울밀대에 이르렀다.
모란봉의 절경을 지켜선 장수마냥 우뚝 솟은 울밀대의 울밀대에서의 봄경치가 좋아 《울밀상춘》이라고 한다지만 단풍계절의 경치 또한 그에 못지 않았다.
계절마다 새로워지는 모란봉의 경치를 즐기고선 고구려의 옛 성벽을 어찌 지나간 력사의 유적이라고만 하겠는가고 하면서 조광원시인은 자기가 창작한 모란봉에 대한 시조중의 하나인 시 《성들》을 읊었다.
이 산정 수려함을 지켜 오늘도 서있는가 고구려 옛 성벽 이기웠던 네앞에 서니 예나제나 굳건한 성들들에 나의 사색이 충충 없지 여라 ...
절승을 이룬 기묘한 바위마더 제 모습 뽐내며 무시신을 모을 때 온갖 풍파를 다 맞으며 외적의 화살도 한몸으로 막으며 천년토록 끄떡없는 모란봉의

성들이여 아, 돌도 다듬어야 성벽을 이루거늘 내 여기 모란봉에 올라 다시금 마음 가다듬노라 이 나라를 지켜 솟은 사회주의성세에 값있게 고여질 내 자리를 찾거져!
옛 성벽을 떠받드는 성들 하나하나에도 선조들의 애국심과 무훈담이 뜨겁게 깃들여있는 모란봉.
오늘도 옛 모습을 고이 간직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민족적공감과 자부심을 깊이 심어주는 귀중한 력사유적들이 많아 더더욱 인민들의 사랑을 받고있는 모란봉이었다.
두팔 벌려 어서 오라 부르듯싶은 모란봉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있었다. 모란봉의 절승경개 곳곳을 찾아 사람들 저마끔 길을 잡아 오르고 산정에선 노래와 춤판이 한창이었다.
《얼마나 복받은 인민입니까. 모란봉이 예로부터 명승지로 세상에 널리 알려졌지만 지난날에는 아름다운 그 경치를 즐길 수 없었던 우리 인민이 아니었습니까.》
격정에 젖은 조광원시인의 말이였다. 그 말을 들으니 생각이 깊어졌다.
명산의 경치가 아무리 뛰어나다한들 인민의 행복이 무르익지 않는다면 어찌 진정한 아름다움에 대하여 말할 수 있겠는가.
지난날 광부사대부들과 잘

사는 사람들만이 올라와 흥을 돋구는 유흥지에 불과했던 모란봉, 오늘은 평범한 사람들 누구나 올라와 휴식의 한때를 즐기는 인민의 명승지로 전변되었으니 이것을 어찌 세월의 흐름이 가져다준 복이라고 하랴.
모란봉의 곳곳에 꾸러진 휴식터들과 김일성경기장, 개성문, 모란봉극장, 식당, 유희 오락시설들...
모란봉은 결코 자연의 아름다움만으로 유명한 것이 아니라 인민들에게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리라 마음세운 절세위인들께서 모란봉을 인민의 명승지로 꾸러주시고 빛내어가시는 것으로 하여 더욱 이름높은 것 아닐랴. 하기에 조광원시인은 달아오른 가슴속 흥분을 시구절에 담아 격조높이 터쳐냈다.
모란봉 태양의 년호로 무궁번영할 행복한 세월에 몰랐던 복받은 모란봉아

나의 환희롭고 기쁨에 찬 모습은 다름아닌 나의 모습같아라 우리 인민의 모습같아라 ...
정녕 모란봉의 아름다운 절정은 수억만년 자연이 다듬었다만 인민의 민복은 어떻게 온 것인가
정중히 우리러니 해빛같은 만수대언덕우에 우리 수령님을 환히 웃고 계시여라
로동당세월속에 경치는 나날이 아름다워지고 인민의 웃음소리 끝없이 높아가는 모란봉, 발목이 시도록 걷고 또 걷고만 싶은 모란봉을 내리며 조광원시인은 말하였다.
《다른 나라들에도 수도에 오랜 력사와 아름다움을 뽐내는 이름난 명승지와 공원이 있다 하지만 인민사랑의 전설과 뛰어난 절경을 자랑하는 우리의 모란봉에 어찌 비길 수 있겠습니까. 모란봉이야말로 평양의 자랑이고 우리 민족의 긍지입니다. 모란봉은 나에게 끊이지 않을 즐거움을 주며 우리는 생각했다. 유명무명의 미술가들과 시인들, 수많은 남다른 소울 앞서거나 뒤서거나 찾기도 찾지 않는다면 어찌 진정한 아름다움에 대하여 말할 수 있겠는가.
본사기자 홍범식



조광원시인

함께 울고웃으며 사는 화목한 바가정

《이 어머니에게 너를 대신해주는 아들이 많다》



덕과 정!
말은 길지 않아도 정다운 그 부름에는 경애하는 건정은원수님을 온 나라 대가정의 어머니로 모시고 친혈육의 정을 나누며 화목하게 살아가는 공화국특유의 참모습이 비껴있다.
《나에게는 끝없는 아들이 많습다.》
우리와 마주앉은 모란봉 구역에 살고있는 강홍화녀성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
강홍화는 아파트현관앞에서 큰길쪽을 그냥 바라보며 서 있었다. 금방까지도 사진첩을 펼쳐며 웃고 떠들던 청년들이

박림성은 소학교 교원이었던 강홍화의 제자림란회의 아들이다. 류경적과림원에서 일하고 있는 림란회는 영수가 없을 때 그의 건강을 돌봐준 잊지 못할 제자였다. 수습년세월이 흘러간 오늘도 자기의 옛 담임교원의 집을 찾아 혈육의 정을 기울이고 있는 림란회는 얼마전 부터 그 길에 아들도 함께 세웠다.
(내 아들 영수야!) 이렇게 입속말로 외우느라니 불속 아들의 얼굴이 눈앞에 안겨왔다.
다른 어머니들과 마찬가지로 강홍화는 어린 아들을 무척 고와했다. 그처럼 귀여운 아들이 다섯살 잡히던 해에 심한 화상을 입음줄이야. 병원에서는 최종중화상이기 때문에 생명이 위험하다고 했다. 즉시 혐의회가 열리고 수술이 진행되었다.
강홍화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팔을 끌어붙이고 자기 아들을 위해 피와 살을 바치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며 생각되는 것이 많았다.

강홍화의 어린시절은 일본 땅에서 흘러갔다. 그후 부모와 함께 사회주의조국의 품에 안긴 그였지만 그날과 같은 광경은 처음으로 직접 보게 된 것이었다. 문로 시아버지가 귀국을 앞두고 일본에서 총수염수술을 받던 이야기가 돌이켜졌다. 의사라는 사람은 돈만 벌 아리고 수술을 채 하지 않은 채 봉합해버렸다. 시아버지는 조국의 품에 안겨 다시 총수염수술을 받았으며 미처 몰랐던 병까지 말끔히 고치게 되었다.
강홍화는 격정을 누를길 없었다. 어제는 시아버지가, 오늘은 또 사랑하는 아들이 조국의 품에서 두번다시 생을 받아안은 것이었다.
아들은 무럭무럭 자랐다. 그런데 중학교에 입학한지 얼마 후 영수는 원인모르게 자주 자리에 눕게 되었다. 그럴 때면 한학급동무들이 집에 찾아가 그날 배운 내용을 영수에게 차근차근 알려주곤 했다.
그후 영수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에도 영수의 소꿉동무들을 비롯한 많은 동

몇해전 남조선에서 17살 난 처녀가 어린 녀학생을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 일어난 사람들의 경악을 자아냈다. 최근에는 학교에서 폭력행위가 조지화되고 흉기사용이 일상화되는 등 그 형태가 보다 잔인하고 집단적인 범죄행위로 번져지고있다.
남조선에서 한해에 발생하는 청소년 범죄수는 무려 9만여건이며 각종 범죄와 사기협잡조직에 망라된 불량자들 중 청소년들이 80% 이상에 달하고있다 한다.
이렇듯 수많은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잃고 변질락락되고있는 것은 그 바탕에 청소년들을 범죄의 길로 떠밀고있는 썩어빠진 정치와 사회제도가 놓여있기때문이다.
남조선에서는 청소년들이 컴퓨터로 범죄와 관련한 정보들을 얼마든지 입수할 수 있다고 한다. 자인 폭탄제조법, 총기류제조법, 잠입한 고문방법까지도 동영상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살인과 폭력이 만무하는 컴퓨터오락에서도 교복을 입은 녀학생이 자기 동무를 칼로 찌르거나 살인준거를 없애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고있다. 또한 영화와 소설들에 성폭행장면이 차고넘치는데도 아무런 고려없이 청소년들에게 퍼지고있다.
어려서부터 살인과 략탈, 폭력과 강도행위같은것에 몰든 청소년들이 어떤 길로 나가겠는가 불보듯 명백한 것이다.
현실은 청소년들을 부패락과 범죄의 길로 떠밀고 남조선사회야말로 전도가 없고 미래가 암담한 암흑사회라는것을 응변으로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열일곱살 처녀는 왜 살인자가 되었는가



본사기자 전명진

역적패당의 멸망을 선포하는 민심의 초불이 라오른다

— 서울에서 제 11차 집중초불대행진 진행 —



초불바다가 또다시 펼쳐졌다.

윤석열역적패당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분노의 열기가 역도를 퇴진시키기 위한 거대한 초불로 라오르고있는것이다.

얼마전 서울에서는 30만명의 군중들이 모여 《김건희특검-윤석열퇴진 제11차 집중초불대행진》이라는 대규모 초불집회를 열었다.

지난 8월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남조선의 각 지역에서 윤석열역적패당의 무능과 정책과판을 폭로규탄하는 집회와 시위를 벌려온 《초불승리전환행동》의 주최로 열린 이번 초불투쟁에 참가한 각계층 군중들은 《정치보복, 민생과판, 평화과피, 친일매국 윤석열은 퇴진하라!》, 《허위경력, 상습사기 김건희에 대한 특별검사를 도입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윤석열역적패당을 단죄규탄하였다.

초불집회장에는 윤석열역도로 나뉜 김건희를 해악적으로 형상화 대형인형이 등장하여 집회참가자들의 투쟁열기를 더욱 돋우어주었다.

주목되는것은 나 어린 청소년들도 윤석열역도에 대한 퇴진투쟁에 적극 나서고있는것이다.

초불투쟁에는 《중, 고등학교학생대표학생협의회》에 소속된 각 지역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참가하여 오는 11월 5일 《제1차 윤석열퇴진중, 고등학교초불집회》를 진행

할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초불 중, 고등학생시민연대》 대표는 《짧지만 윤석열(정권)기간에 중고생들을 탄압하고 온갖 류언비어를 유포시키면서 초불집회를 방해하려는 태도를 보고 실망하지 않을수 없었다》며 《중, 고등학생들이 윤석열(정권) 심판을 위해 광장에 나왔다는것을 국민께 보여드리고저 교복을 입고 나왔다》고 열변을 토했다.

한편 민주로총상하 노동운동단체인 화물연대는 윤석열퇴진초불투쟁과 때를 같이하여 서울의 다른 장소에서 조인 9 000여명이 참가하는 반《정부》결의대회를 개최하는것으로 초불투쟁에 합세해나갔다.

지금 남조선의 그 어디에서나 윤석열역적패당에 대한 민심의 중요와 분노의 목소리들이 끊이지 않고 터져나오고 있다.

그야말로 온 남조선땅이 역적패당을 퇴진시키기 위한 투쟁으로 부글부글 끓고있다.

남조선 각계층의 대중적인 반역《정권》퇴진투쟁은 윤석열역도의 오만과 독선, 사치와 허세, 사대매국과 동족대결광풍이 빚어낸 필연적인 결과이다.

알려진것처럼 윤석열역적패당은 임버릇처럼 위우던 《공정과 상식》을 꿰뚫고 추근인물들과 검찰총신, 부정부패과자들을 자기 주위

에 끌어당겨 《검찰공화국》, 《끼리끼리 정부》, 《동아리정권》을 만드는 등 집권 첫 시작부터 민심의 요구에 역행해나갔다.

선거때 내들었던 《장미빛공약》을 비누거품처럼 날려버리고도 낮뜨거울줄 모르고 로조화동역제, 로동시간연장, 재벌들의 세금인하, 재해처벌과 기업규제완화 등 99%를 외면하고 1%만을 위한 정책을 공공연히 추구한 윤석열역도의 악정으로 금리, 환율, 물가는 하늘높은 줄 모르고 추주쳐 《3중고》에 쓸줄을 짓눌러온 민생은 도란에 빠져있다.

하지만 윤석열역도는 민생은 안중에 없이 초호화취급식을 시작으로 또 수많은 《혈세》를 제 집꾸러기에 랑진하였고 미신에 빠진 너넨네와 일가족속들의 시기, 협잡의 부정부패행위들을 목인조장시켰다. 또한 정치적반대파들에 대한 정치보복에 퍼는 이 되어 날뛰고있다.

어디 그런인가.

이미 력사의 쓰레기통에 처박혔던 《부주적론》을 부활시키고 《북선제타격》을 떠들며 조선반도정세를 극도로 격화시키고있다.

우리 민족의 친년속에게 아무하마 재침의 걸잡이도 뜻을 하고 미국상진의 매거지전략, 줄세우기전략에 무작정 추종하여 주변사람들의 시기를 건드려놓아 남조선을 동체복신세로 만

든 특등매국노도 윤석열역도이다.

오죽하면 남조선 각계층속에서 《불안해서 못살겠다》, 《살아가기가 이렇게 힘든적은 없었다》, 《(대통령)을 바꾸어야 한다》는 울분과 규탄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있겠는가.

지금 윤석열역적패당이 최악의 위기에 서 벗어나기 위해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대응》을 떠들며 초불행진참가자들, 반《정부》투쟁에 나선 사람들에 대한 탄압기도를 공공연히 드러내고있지만 그것은 과멸의 운명에 직면한자들의 단말마적인 발악에 지나지 않는다.

파쇼폭압은 결코 만능의 통치수단으로 될수 없으며 그것은 독재자들의 멸망의 시간만을 앞당길뿐이라는것은 남조선의 반파쇼민주화투쟁이 실증한것이다.

한몸을 태워 어둠을 밝히는 초불처럼 남조선을 파쇼의 란무장, 사대매국의 서식지, 동족대결마당으로 만든 윤석열역적패당을 력사의 무대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민심의 초불은 타올랐다.

민심의 지향과 요구를 한사코 외면하고 권력의 자리에 계속 틀고앉아 반역정권에 매달리고있는 윤석열역적패당을 반대하는 분노의 초불은 전민항쟁의 화물로 새차게 타올라 역적패당에게 준엄한 심판을 내리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주광일



얼마전 윤석열역도가 《국회》에서 다음해의 주요정책방향에 예산편성정책을 반영한 그 무슨 《시정연설》이라는것을 하였다.

스 처지 날수 없는것은 역도가 《시정연설》이라는것도 우리 공화국을 또다시 악랄하게 걸고든것이다.

그 무슨 《안보현실》이니, 《북의 도발》이니를 운운하면서 미국과의 《연합방위태세》와 미국, 일과의 《안보협력》을 통해 압도적인 역량으로 《대북억제력》을 강화할것이라고 기업을 토한것이 그리하다.

까마귀 백번 울어도 까옥소리라고 동족대결에 쫓겨는 역도의 일에서 다른 소리가 나올리 만무하다.

역도가 《국회》무대에 나서서까지 동족을 헐뜯으면서 대결약담을 늘어놓는 밀바탕에는 국도의 통치위기가 놓여있다.

알려진것처럼 윤석열역도의 무지무능과 독단, 동족대결과 친미친일사대매국정책으로 하여 남조선은 최악의 위기에 처해있다.

민생문제만 보아도 물가는 30년만에 최악으로 오르고 1990년대 금융위기에 환율이 최고로 치솟았으며 금리역시 계속 오르는 등 《교물과, 교환률, 고금리의 3고》속에서 인민들은 말그대로 죽지 못해 살아가고있다.

상반년 《가계부채》는 1조 4 500억US\$에 달하여 한사람당 빚부담액은 1만 7 000US\$로 늘어났다.

오죽 살기 힘들면 사람들이 《내 삶은 생존》이라고 절규하고있겠는가.

그뿐이 아니다. 윤석열역적패당의 강권과 전횡, 독재정치로 하여 《국회》는 개싸움마당으로 되고 인민들의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는 여지없이 짓밟히고있으며 이것은 사회적갈등과 대립,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있다.

특히 역적패당의 어리석고 무모한 전쟁대결책동으로 남조선의 《안보불안》은 시간이 갈에 따라 더욱 고조되고있다.

《동맹강화》를 떠들며 벌리는 역적패당의 추악한 친미친일사대매국책동으로 남조선의 내미중속 역시 더욱 심화되고있고 섬나라것들이 주종관계를 강요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있다.

이렇게 정치, 경제, 외교 등 모든 면에서 위기에 위기만 돌아오는것으로 하여 윤석열역도의 지지력은 바다에

떨어져 오를법을 못하고있다.

윤석열역도에 대한 불신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것은 《시정연설》때 역도의 정치보복에 대한 불만으로 더불어 어민주당이 참가를 거부하여 《반쪽짜리 연설》이 되었고 지어 보수층내부에서도 돌아가며 망신만 시키는 역도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터져나오는것을 통해서도 알수 있다.

남조선 각계층이 《정치보복, 민생과판, 평화과피, 친일매국 윤석열은 퇴진하라!》고 분노를 터뜨리고있는것은 응당한것이다.

통치위기가 조성되면 동족을 걸고들며 거기에서 출로를 찾으려 하는것은 력대 남조선보수패당의 상투적인 수법이다.

윤석열역도가 《시정연설》에서 동족대결의 악담을 늘어놓는것은 여론의 시선을 다른데로 돌려 국도의 통치위기에 서 벗어나자는데 그 비렬한 목적이 있다.

하지만 역도가 위기를 모면해보려고 별의별 핏족을 다 꾸며두 거기에 속아넘어갈 사람은 없다.

남조선 각계층은 이미 윤석열역도에게 침을 뱉었다.

윤석열역도가 살겠다고 아무리 몸부림쳐보아야 그것은 물에 빠진자 지푸라기 잡는 격에 지나지 않는다.

남조선의 도처에서 들불처럼 일어난 윤석열퇴진투쟁의 불길은 머지않아 《룡와대》를 활활 태우게 될것이다.

방철용

저쪽 찌르륵—

가을철 풀벌레의 처량한 소리가 가득이나 번잡한 머러통을 들추서 놓는다.

(위, 날더러 퇴진하라! 우리 란했겠다? 이리다 정말 무슨 번이 나네게 아니야?)

제수없으려면 맹물을 마셔도 이발이 깨진다고 요즘은 날에날마다 어망치당한 사건만 련발한다.

얼마전에도 《한국형3축라격체제》의 핵심인 《현무-2C》발사가 실패하고 《에이태킵스》는 발사하자마자 어더로 날아갔는지 행적불명이 되었다.

《안보》를 위해 군사훈련을 하는데 민심은 《안보불안》을 키우는 전쟁연습이라고 떠들썩하며 퇴진, 란핵의 한조항으로 찍어놓았다.

《부품》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한 조상들의 수법대로 《북위협》을 요란스레 떠들며 정세를 한껏 긴장시켜도 지지물은 오르지 않고 거꾸로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때문에 전쟁날까 불안해서 못살겠다며 백성들은 욕속해가만 한다.

리명박의 《비핵, 개방, 3 000》을 슬쩍 모방하여 이름만 바꾸고 박근혜의 《통일대박》을 재간겅가 공해서 《비핵화》를 하면 《보상》을 잔뜩 하겠노라 《담대한 구상》을 발표했지만 시작도 매기 전에 엉마짜이 되었다.

그토록 목이 터지게 웨쳐온 미국 《확장억제》에 대해서는 역제는 고사하고 화를 불려오는 악책이라고 비난한다.

경제위기는 갈수록 심화되고 백성들은 살기 힘들다고 도처에서 《윤석열퇴진》을 부르짖는다. 어쩌다가 《국회》를 찾아가 연설을 하였는데 《안보연설》을 한것은 전부 퇴장하여 《대통령》이라고 사방에서 손가락질하니 참 죽을 맛이다.

사면초가, 내 신세가 이렇게 되

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다른 뾰족한 수가 없지 않은가. 다른것은 몰라도 되든 안되든 북을 물고늘어질수 밖에.

어느 누가 말했던가?

—《담대한 구상》은 허망한 구상이니 《대북정책》을 다시 작성하라—

미친놈, 다시 작성할것같은 《대북정책》을 공포하지부터 않았을것이다.

바라, 태평양너머로 허위단심 찾아갔을 때 비록 48초이지만 미국 대통령격까지 친히 만나주었고 《동맹강화》를 약속해주지 않았던가.

(그때그때, 날 보고 눈은 소경, 귀

를 막을 지어야 한다.

미국도 그렇지만 일본도 농칠수 없는 명줄이다. 우리 조상들이 일깨워주지 않았던가. 미국과 일본은 갓끈과 같이 한쪽만 풀어진 권력이라는 것을 부지할수 없다고.

박근혜처럼 미어러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지말자. 외로 가는 모로 가는 종착점까지 가는게 기본이지.)

권력과 부귀에 대한 욕망은 굴뚝같이 지척에 있는 북을 생각하면 또 풀이 쑥서난다.

참 이상하기만 하다.

수십년동안 서방세계가 달라붙어 경제적으로 봉쇄하고 군사적으로 압박해오았지만 북의 자력갱생, 자급

자족이라는 내성만 더 강하게 하고 핵능력과도화만 축진시키는 결과만 가져왔다.

《제재》만이 북을 바꿀수 있다는 《신화》는 북특유의 강력한 정치체제와 생존방식을 1%도 인식하지 못한 일가들이 착각한 만화가 되었다.

조선반도주변국들이 《협력》하면 《북의 변화》를 이끌수 있을것이라는 《착상》도 국제정치의 력학적관계를 착각한 어리석은 착오라고 세인이 말한다.

그러지 않아도 지지물은 집권해서부터 얼음진 비탈길로 정진없이 미끄러지는 암소처럼 멈춰설줄 모르는 북의 경경고압은 얼천덜 천천격, 설상가상이다.

눈덩이 굴러가며 불어나듯, 아니 기하급수적으로 강해지는 북의 힘, 더 견고해지는 북의 국제적위상.

(휴—)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커가는것은 불안이고 나오는긴 한숨뿐이다.

그러네다 《퇴진하라!》, 《란핵》답이다.》라는 민심의 토로가 《룡

와대》의 처마까지 울린다.

리명박이처럼 되지 않으려고, 박근혜처럼 되지 않으려고 이곳 통상기술에 이사점을 편지 몇달밖에 안됐는데 벌써 퇴진하고 란핵세례를 받으라니 민심이 참 가혹하지.

(이리다 정말 내가 누구처럼 초불의 바다에 타죽게 되거나 앉겠는지?)

이리 뒤척 지리 뒤척 비몽사몽한 가운데 누군가 다가오는 모습이 보인다.

최고향을 차고 꺼꺼부정한채 쓰러질듯 비칠것이라는 리명박이 아닌가.

(저 사람이 어떻게 여기에...)

뒤에 또 누가 있다.

《503》번호를 단 수인북-박근혜이다.

그런데 머리를 풀어헤치고 갈팡질팡 헤메비는 그의 뒤에는 온통 불길이다. 초불바다이다.

두뼉두뼉—

(아니? 전두환평갑까지, 그뒤엔, 저런 박정희의손도...)

전두환의 손에 들려진것은 제 유골함이 아닌가.

(물릴 땅 한뼉이 없다고 날 찾아오는게 아니야? 그렇다고 나한테 무슨 뾰족한 수가 있담. 나도 언제 저신세가 될지 모를 판인데.)

그건 그렇고 저 《유신》어른의 손에 쥐어진건 도대체 뭐냐? 저런, 피가 투투 흐르는 권총이 아닌가.

(저, 저— 피물은 총구를 나한테 겨누면 어찌자는거야. 안돼.)

망—

《으악—》

(휴— 꿈이었구나.)

내려다보니 슬픔이 바닥에 나딩굴고 피맛액체가 바닥을 질척하니 적시고있다.

식민지주, 대결광신자의 얼흔을 베며 《룡와대》의 밤은 깊어만 간다.

김정혁

집권후 출몰 반역행위만을 일삼아온 윤석열역적패당이 날이 갈수록 인민들로부터 고립배경당하고있다.

역적패당이 임버릇처럼 위대던 《상식과 공정》이 벗어났기란 정치실종, 경제위기, 민생과판, 《안보불안》뿐이다.

—윤석열에게 기대할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바로 윤석열역도의 무지와 무능, 독선과 오만이 빚어낸 참담한 현실을 체험하며 남조선인민들이 내린 결론이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에서는 윤석열역적패당을 반대하는 대중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다.

남조선인민들의 반《정부》투쟁에서 특징적인것은 각계층이 윤석열역도의 각종 정책을 반대하는 새로운 투쟁단체들을 결성하고 반《정부》투쟁을 광범히 전개하고 있는것이다.

윤석열역도가 집권한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의 기간에 안도 각계층 인민들은 《포괄적, 점진적한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입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만 5세 초등위학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를 비롯한 새로운 단체들을 결성하며 기초하여 로동, 교육, 외교, 국방 동족대결 등 당국이 추진하는 주요정책들을 투쟁과피로 정하고 반윤석열투쟁을 힘있게 벌리

고있다.

이 투쟁에는 6.15남측유원회와 진보연대, 민주로총을 비롯한 진보적인 운동단체들은 물론 야당들과 민족문제연구소, 정의기억연대, 《한국의독교교회협의회》 등 시민, 종교단체들까지 적극 합세해나오고있다.

윤석열역적패당을 반대하여 들고일어난 각계층 군중들은 집중투쟁, 련대투쟁 등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투쟁의 도수를 높이고

동군사연습이 벌어질 때마다 서울시청앞과 미국대사관앞, 경성남도 창원 등 각지역에서 동시에 《효순미 20주기 초동결정 계승 6.11평화대회》, 《반미자주 로동자대회》, 《경남반전평화행동》 등 다양한 명칭의

투쟁을 조직하고 불평등한 남조선미국관계제와 합동군사연습중지, 남조선강점 미군철수를 요구하여 집중적인 반미, 반《정부》투쟁을 전개하였다.

《만 5세 초등위학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가 조직한 윤석열역적패당의 《교육정책》을 규탄하는 반《정부》투쟁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합세하였는가 하면 8.15를 계기로 진행된 민주로총

의 통일선봉대활동에 녀성, 청년, 진보정당과 《한국로총》까지 망라되어 미군기지에 물러가 반미결의대회를 가진데 이어 《광복 77주년 8.15자주평화통일대회》

막물성, 미군기지앞에서 드러내기, 미군기지에서의 돌입, 윤석열역도를 징벌하는 의식 등 투쟁방법도 다양하게 벌어져 각계층의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갈수록 더욱 확대되고있는 반《정부》투쟁은 무지무능과 오만으로 남조선의 정치와 경제 등 모든것을 망쳐놓은 윤석열역적패당에 대한 민심의 불만과 분노의 폭발이다.

윤석열역도를 그대로 두 고서는 남조선사회가 리명박, 박근혜등의 집권시기보다 더 험악한 인간생지옥으로 전변될것이라는것이 남조선의 한결같은 민심이다.

본사기자 김영준

위기에서 벗어날 줄은 없었다

민심은 역도를 버렸다

《룡와대》의 밤

신발폭포 펼쳐진 흐뭇한 풍경

* * *

* * *

지난 18일부터 27일까지 평양전백화점에서는 《가을철 전국신발전시회-2022》가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신발의 다종화, 다양화, 다색화, 경량화, 견고성》의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회에는 수십개 단위에서 생산된 100여종의 신발제품이 전시되어 신발공업 부문에서 이룩된 60여건의 가치있는 연구성과자료가 제출되었다.

자기 단위를 상징하고 대표할 수 있는 다종다양한 신발들을 전시하고 인민들의 평가를 받는 방법으로 진행된 전시회는 런인 많은 참관자들로 흥성이었다.

어느 신발생산단위를 막론하고 출품된 모든 신발제품들이 계절적특성에도 맞을뿐 아니라 인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고 질이 좋은 것으로 하여 참관자들이 어느 제품부터 팔라

잡아야 할지 몰라하였다. 그중에서도 원산구두공장 전시대를 많은 사람들이 찾았다. 이 공장에서 생산한 신발제품들은 색깔과 모양이 다양하고 세련되었을뿐 아니라 가볍고 든든한것으로 하여 저마다 요구하였다.

평양구두공장의 《날개》상표를 단 신발제품들도 호평을 받았다. 특히 남자구두에 대한 인기가 대단하였다. 천연가죽 혹은 합성가죽으로 만든 신발제품들을 보며 참관자들은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류원신발공장에서 생산한 각종 운동신발과 서천해동공장에서 생산한 사출장화, 만경대구두공장에서

생산한 질 좋은 구두제품들에 대한 반응도 좋았다. 경공업성의 한 일군은 각종 운동신발과 구두, 사출장화를 비롯하여 해마다 출품되는 신발제품들이 늘어나고 그 질 또한 좋아지니 인민들의 평가도 날을 따라 높아간다고 이야기하였다.

《몇년전보다 신발들이 많이 달라졌다. 우리 상료가 볼

은 신발들이 얼마나 질이 좋은지 구려어 다른 나라의 신발을 찾을 필요가 없어졌다.》 이것이 전시회에 출품된 국내산 신발제품들에 대한 참관자들의 평가였다.

이번 전시회에서 찾아보게 되는 좋은 짝은 자기 지방을 대표할 수 있는 제품들을 내놓는 단위들이 훨씬 늘어난 것이었다.

룡원신발공장, 안주신발공장, 강서신발공장 등에서 출품한 신발제품들은 지방공업공장에서 생산한 제품들이 옹건 옹건 할 정도로 다양화, 다색화되고 질도 높았다.

이번 전시회는 나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나라의 신발공업발전면모를 직관적으로 보여준 의미있는 계기로 되었다.

본사기자 림광훈



락랑박물관을 찾아서 (2)

락랑문화의 성과와 전통물려들



락랑박물관의 2층 진열실에 들어선 우리는 먼저 락랑문화의 성과를 보여주는 락랑성곽구역을 돌아보았다. 남경회책임강사는 우리에게 락랑문화의 성과를 소개하며 락랑성곽의 위치와 락랑성곽의 구조를 설명해주었다. 락랑성곽은 오봉산에서 시작된 구룡성벽이 대동강에서 끝나는 돌진

곳에 쌓았는데 그 한변의 길이는 350~400m로서 총 길이가 대략 1.5km나 된다고 이야기하였다. 이곳 성곽구획에는 락랑토성에서 발굴된 벽돌과 암기와, 수기와, 막새기와 등의 유물들과 여기서 발굴된 유물자료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유물모형이 전시되어 있었다. 남경회책임강사는 락랑문화의 성과를 기본적으로 부정형으로서 자연지세를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쌓았다고 해설해주었다. 그리고 락랑문화는 고조선에 뿌리를 두고있는 고유한 문화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러면서 《삼국사기》에서 나오는 호동왕자이야기와 온달전에서 나오는 《락랑전》도 락랑과 련결시켜볼 수 있다고, 이러한 자료들은 락랑국이 고구려의 남쪽에 있던 소국으로서 처음에는 그 중심지가 평양 부근에 있다가 나중에는 더 남쪽으로 옮겨간것으로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남경회책임강사의 해설을 들으며 우리는 락랑문화가 고조선말기의 주민들과 그 유민들이 창조한 문화로서 고구려의 남방진출이 강화됨에 따라 선진적인 고구려 문화에 점차 흡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장속영

천연기념물 개성금송

개성시 교려동 송악산기슭에는 100여m의 거리를 사이에 두고 두그루의 개성금송이 자라고있다. 일명 《금송》이라고 부르는 이 나무는 참나무과에 속하는 사철푸른 바늘잎나무이다. 개성금송은 1910년경에 30년정도 자란것을 옮겨심은것이라고 한다. 마당에 있는 나무의 높이는 11.5m, 뿌리목둘레는 1.05m, 가지경은 5.1m이다. 원대가 곧추 뻗어올라가면서 잔가지가 많이 나오고 나무갓은 좁은 원추모양을 이루고있다. 뒤마당에 있는 나무는 높이가 13.5m이고 뿌리목둘레는 1.09m, 가지경은 5.3m로서 약간 사선으로 곧추 자랐다. 개성금송은 암수한그루식물로서 꽃은 3, 4월에 핀다. 개성금송은 그 생태적특성은 물론 희귀한 식물로서의 관상적가치와 과학연구에서 의의가 있는 것으로 하여 천연기념물 제464호로 지정되어 보호되고있다. 본사기자



사화 연암동과 박지원 (3)

글 리성우, 그림 채대성

영조가 세상을 떠나고 정조가 즉위할 때는 연암이 마흔살 나던 1777년이었다. 정조가 아직 세손(왕위를 넘겨받을 손자)으로 있을 때 세손의위사였던 홍국영이 정조의 즉위를 계기로 왕권을 등에 지고 온갖 오만부패한 행동을 다하면서 전횡을 일삼았으나 그 누구도 감히 말한마디 못하였다.

정조가 세손으로 있을 당시의 어느날 영조는 세손을 불러 요즈음 무슨 책을 읽는다고 물었다.

《사기》의 《묘종편》을 읽는다는 손자의 대답을 들은 영조의 낯빛이 순간에 흐려졌다. 성격이 엄격하고 날카로와 자기 아들인 사도세자를 뒤주속에 가두어 굶겨죽인 영조인지라 기분이 틀리면 또 손자에게 어떤 처분을 내릴런지 예측할 수 없었다.

영조가 기분나빠한 까닭은 다름아니라 《묘종편》에 《네 어머니는 종이다.》라는 대목이 있는데 영조의 어머니 최씨가 바로 왕궁에서 궁녀들의 시중을 들던 종인 무수리였으므로 영조는 늘 이것을 수치로 여기고있기 때문이었다.

영조의 마음속을 재빨리 더듬어본 정조는 《묘종편》의 그 대목을 찢어버리고 읽는다고 대답하였다. 거짓말로 바쁜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였는데 영조는 그 대답이 미덥지 못했던 사람을 시켜 세손이 보던 책을 가져오라고 하였다. 정조는 낯빛이 까맣게 질려 온몸을 떨었다.

영이 《사기》를 가져오라는 왕의 분부가 떨어지자 재빨리 세손에게 위협이 닥쳐온 것을 짐작하고 책에서 《네 어머니는 종이다.》라는 대목을 오려내고 풀로 붙인 다음 오래된것처럼 만들어서 보냈다. 그것을 본 영조는 매우 흠뻑해하면서 그후부터 세손을 굳게 믿어 그 어떤 참소를 들지 않고 왕위를 고스란히 물려주었으며 정조는 자기 장차 즉위하면 위협에서 구원해준 홍국영을 중히 등용할것을 약속하였다.

이런 일로 하여 정조가 즉위하자 홍국영이 세도를 잡고 전횡을 일삼게 되었던 것이다.

연암이 이러한 불의를 꿈게 불리 없었고 용서할리 없었다. 정면으로 대결한적은 없었으나 홍국영이 같은 불의의 세도가들을 조소하며 하는 그의 립장은 이렇게저렇게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지 않아도 연암이 젊은 랑반사대부들중에서 나날이 인망이 높아가는데 시기와있던 홍국영은 연암이 자기를 하찮게 여긴다는 것을 알자 그를 모해할것을 꾀하면서 박해를 가해오기 시작하였다.

백영숙이라는 친구가 이 소식을 먼저 듣고 연암에게 귀띔해주었다. 그러지 않아도 랑반사대부의 고루한 생활에 싫증을 느끼고 초야에 묻혀살것을 희망하던 연암은 주저없이 한양을 떠나 연암동으로 갔으며 한동안 한양출입을 끊어 버렸다.

연암동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궁벽한 골짜기였다. 자그마한 개울 하나가 동쪽으로 흐르는데 그 개울 옆에 연암이라 부르는 여러 길 되는 바위절벽이 솟아있고 개울 옆 미끄러운 등성이로

는 갈솔이 우거져있었다. 큰길로 7~8리를 나가야 겨우 닭우의 소리, 개짖는 소리를 들을수 있었고 하루종일 가도 사람을 볼수 없는 곳이었다.

연암은 산기슭 평탄한 곳에 연암으로 초가삼간을 마련하고 불을 놓아 돌밭을 일구면서 농사를 지었다. 집자리를 잡을 때 친구인 백영숙



이 말을 타고왔다. 그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무인의 자손이고 그자신도 글이 능하고 활을 잘 쏘아 무과에 급제하였으나 랑반사대부들의 마음을 받아 벼슬도 하지 않고 결백하게 지내는 사람이었다.

두사람은 말을 갈솔에 세워둔채 골짜기를 둘러보았다. 연암이 재떨이를 들어 개울 건너 언덕을 가리키면서 큰 회담을 담은 목소리로 즐거운듯 소리쳤다.

《자기 언덕배기에 꼭- 뽕나무를 심어 울타리를 두르고 이쪽 갈밭에 불을 질러밭을 일구면 한해에 조 천석은 벌것갈데.》 《허허... 그렇게 되면 부자가 될 모양인데 술독마다 찹쌀술이 넘쳐날 때 함께 마실

친구가 없으니 어찌한다?》 《흠, 걱정도 팔자로운. 내 이웃은 범과 이리요. 청서가 또한 벗이 되어줄데 무슨 걱정인가.》

연암은 꺾꺾 웃으며 부시를 쳐서 갈밭에 불을 질렀다. 삼시에 삼단같은 불길이 일어났다. 불길은 바람을 타고 와작 와작 소리를 내며 넓게 번져나갔다. 불길과 연기에 놀란 장끼 두마리가 푸드득 날아올랐다.

《야, 장끼로구나. 내가 활을 잊고 왔구나!》 백영숙이 아이들처럼 모두 발뽀를 하며 손뼉을 쳤다. 이때 강변쪽에서 어린 사슴

를 심고 집앞에 천그루 배나무를 접해놓고 개울을 따라 천그루 복숭아, 살구나무를 심고 개울을 막아 못을 만들고 물고기를 기르겠네. 저 아래쪽 바위밑에 100통의 벌을 치고 나무울타리를 두르고 소를 매놓으면 이 골짜기가 어떻게 될상인가?》 백영숙이 웃었다.

《부림군, 부림단 말이야.》 ...그런데 몇해후에 백영숙이 이곳으로 다시 왔을 때 천천만만 리상은 역시 한갓 꿈으로 그쳤고 실현된 것은 하나도 없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연암은 초가마당에서 백영숙을 맞이하였다. 《그래 기린팔로 들어가겠 다루?》 연암의 물음이었다. 《더 궁벽한 곳이나 아마 여기보다 나을지도 모르지. 송아지를 안고 들어가는데 그걸 길러서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염장(소금, 된장)이 없어서 돌배를 단고야 장으로 먹어야 하는 곳일세.》 연암은 한동안 대답이 없다가 타이르듯 말했다.

《내 이곳에 처음 왔을 때 천그루 뽕나무, 천그루 복숭아나무를 골랐으나 그동안 내 손으로 심은 뽕나무는 겨우 열두그루뿐인데도 그 겨우 또한 어깨노리에 닿을뿐인데, 우리가 한갓 서생의 몸으로 생각이 많으니 힘이 모자라니 한탄스러운 일일세.》 그렇다고 내 자네를 만류하지는 않겠네. 자네의 결심을 장하게 생각할뿐 내 살림이 곤궁함을 또한 슬퍼하지도 않네.》

연암은 청주 한잔을 가득 부어 백영숙에게 주며 웃었다. 《자, 이걸 자네가 말하던 찰술인줄 알고 달게 마시게.》 《그럼세. 이 술은 연암선생이 쌀이 아니라 뜻으로 빚은 연암주로 알고 마시겠네.》 《연암주라... 그 참 술이 름이 좋군.》 백영숙은 선선히 웃으며 입수뽀를 갈라주고 잔을 단숨에 내었다. 백영숙의행은 연암에서 하루를 묵고 다음날 기린팔로 떠나갔다.

유구한 력사, 찬란한 문화 민족고전 《동국지리지》

《동국지리지》는 한백결(1552-1615)이 우리 나라 고대의 력사와 지리, 중세봉건국가들의 력과 수도, 산과 강, 요새 등의 위치를 연구고증하여 쓴 력사지리책이다. 이 책은 1640년에 출판되었다. 책에서 저자는 새로운 실증적방법 다시말하여 기성사료들과 학생들의 우단점을 고증하고 자기의 견해를 밝히는 방법으로 고대 및 중세 국가들의 력사지리를 정확히 해설하려고 시도하였다. 책의 구성체계는 크게 고대조선의 력에 대한 고증

부분, 고구려, 백제, 신라 등 세나라시기 국도, 강역, 형세, 관방에 대한 고증부분 그리고 고려의 국도, 강역, 관방 등에 대한 고증부분으로 되어있다. 책에서는 국내외의 문헌들에서 뽑은 고대 및 중세 국가들의 지리관계사료를 인용하고 그 사이사이에 저자의 견해를 보충하면서 일련의 기

본적인 력사지리문제에 정확한 해답을 주고있다. 《동국지리지》는 봉건사대주의사들이 쓴 력사책의 자료들을 위주로 고증하였으므로 부정확한 점이 적지 않으나 우리 나라의 력사지리를 실사구시적방법으로 쓴 책으로서 귀중한 민족지리유산의 하나이다. 본사기자



가막조개젓

음식감으로 가막조개살 300g 일 때 마우 100g, 소금 6g, 참기름 5g, 사탕가루 10g, 파 5g, 마늘 10g, 생강 고추가루 2g, 참깨 1g을 준비한다. 가막조개살에 채로 썬 마우와 소금, 다진 파와 마늘.

지자기폭풍으로부터의 건강보호

지자기폭풍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하는것은 질병을 예방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나신다. 건강한 사람은 지자기폭풍의 변화에 적응할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나 매우 허약한 사람, 심장혈관계통질병의 위험인자를 가지고있는 사람들, 오래동안 앓고있거나 나이가 많은 노인들에게는 엄중한 후과를 가져올수 있다.

특히 심장혈관계통질병을 앓고있는 사람들이 지자기폭풍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게 된다. 지자기폭풍의 피해를 미리 막기 위해서는 지자기폭풍날자를 잘 기억해두어야 한다. 그리고 혈압의 변화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 지자기폭풍을 전후하여 명확한 원인이 없이 머리가 아프며 어지럼증, 뉘뉘이 뻗뻗

한감, 언어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제때에 혈압약을 복용, 오줌배기약, 진정제 등을 증상에 맞게 써야 한다. 지자기폭풍이 예견되는 날에 물을 많이 그리고 자주 마셔 피가 걸어지는것을 막아야 한다. 그리고 생활에서 섭생을 잘 지키며 몸단련을 꾸준히 하여야 한다. 본사기자